

# 광양시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본격화

### 민관학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연내 텃밭 부지 조성계획 용역 추진 2028년 완공 목표...농촌·도시 함께하는 발효문화 관광 거점으로

광양시가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은 전통 발효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 체험 활성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글로벌 발효식품 산업의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광양시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농업과 체험형 여행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광양의 전통 발효 문화, 식품 산업으로의 계승 발전=광양시는 백운산의 청정 환경을 활용해 전통 발효식품을 생산해왔다.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광양 기정떡, 광양 막걸리, 고로쇠 수액을 활용한 된장과 고추장, 광양 매실청 및 매실장아찌 등이 있다.

특히, 광양의 대표 음식인 '싱건지'는 동치미의 일종으로, 일반 동치미보다 숙성 기간이 짧아 아삭한 식감과 산뜻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이는 광양불고기와 궁합이 잘 맞아 지역 음식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광양시는 이러한 전통 발효음식의 가치에 주목하고, 동치미(싱건지)를 광양불고기의 대표 반찬이자 지역 발효식품으로 육성해 광양의 식품 산업을 한층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양의 새로운 농업·관광 허브로='동치미 마을'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옥룡 계곡이 범람해 형성된 자연형 하천섬인 추동섬에 조성된다. 현재 공원으로 활용 중인 추동섬은 백운산 관광지 및 인근 한옥마을과 가까워 관광객 방문 유도가 가능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조성된 섬 특성상 발효식품 숙성에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정비된 공원부지로 추가 개발될 가능성, 기존 공원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동치미 마을을 농촌 체험과 발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관광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체험과 교육 결합한 동치미 마을 운영=동치미 마을은 단순한 체험형 농촌 마을이 아니라, 도시민



광양시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예정지인 추동섬.

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발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용기존' 개인 농장은 100여 개의 개인 농장 텃밭을 분양하며, 방문객이 직접 발효음식을 담가보고 동치미·김치 발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도시민들을 위해 작물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방문객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일 체험형 텃밭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수확한 농산물로 직접 발효음식을 만들어볼 기회도 제

공된다.

이와 함께 발효 아카데미에서는 발효식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발효식품 표준화 연구 및 신제품 개발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체험형 공간을 통해 '5도 2촌', '촌강스'(촌+바캉스)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1월 중 전문가, 교수,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 텃밭 조성공사를 위한 공인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동치미 마을은 단순한 체험형 관광지가 아니라, 광양의 농업과 문화를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는 동치미 마을 사업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농업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8년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이 완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 식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 팔영대교.

## 고흥 팔영대교, 밤에 더 빛나는 야간 관광명소로 재탄생

### 30억 들여 LED 경관조명 설치 설 앞두고 23일부터 시범 운영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육상관광인 '팔영대교'가 야간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게 된다.

고흥군은 30억원을 들여 팔영대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2월 초 준공에 앞서 23일부터 시

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팔영대교(L=1.3km)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지난 20일 현장 설명회 및 연출 시연을 거쳤다. 23일부터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 방문객에게 새롭고 다채로운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팔영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계절에 맞춰 자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의 조명을 연

출하며 주탑에는 우주, 유자 등 8가지 고흥의 이미지가 담긴 고보조명을 투광해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 센터에서 바라보면 대교의 야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며 "고흥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더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고흥=주각중 기자 gju@

### 구례군 상수원 보호구역 등 대상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구례군이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펼친다.

구례군은 설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 등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군은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는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설 연휴 취약 시기를 악용한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 마을회관·경로당·교량 등 대상

곡성군이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

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단,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점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군에서는 점검 대상물을 선정하고, 군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후속 조치토록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 연휴 공영주차장 3702면 무료개방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명절 귀성객 방문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주차장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8개소 3615면 ▲노상주차장 3개

소 87면 등 총 31개소 3702면이다.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오동도 주차타워'와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은 교통 혼잡이 예상돼 연중 유료 운영된다.

또 연휴 기간 주차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주차관리센터 2개소는 24시간 운영된다. 이용객이 많은 일부 주차장의 경우 연휴 기간 내 현장 인력배치를 통해 주차장 내 교통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 읍포해수욕장서 27일 설맞이 달집태우기

### 700대 드론 연출 '드론라이트쇼'

보성군의 '2025 설맞이 달집태우기'가 오는 27일 읍포출발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예초 지난 1일 예정됐던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연기됐다가 설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달집태우기'의 하이라이트는 길이 100m의 대형 뱀 모양 달집을 태우는 퍼포먼스다.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 700대의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 쇼는 다채로운 형상과 빛의 향연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 보성군립국악단과 그룹 레디스의 팍페라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지는 해넘이 시간에는 불꽃 타악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시각과 청각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보성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하여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떡국 나눔 행사와 새해 소망 적기 프로그램이 마련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보성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달집태우기 행사는 지난 1일 해맞이 행사로 계획됐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애도하기 위해 연기됐다가 설을 맞아 군민·귀성객·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참석하신 모든 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팔마보조경기장.

## 순천시, 설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무료 개방

순천시가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설의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체육시설은 팔마경기장(축구·축구·테니스·소프트테니스·국궁), 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풋살·인라인스케이트), 조곡생활체육공원(축구·게이트볼), 상사경기장(축구·풋살·축구)이다.

이 기간 중 누구든지 예약 없이 경기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자는 최대 2시간 시설을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운동장비 착용과 경기장 내 물·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활기찬 명절을 보내며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 여행사 마케팅비 최대 300만원 지원

여수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도와 1:1 매칭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 홍보(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 물품 제작 ▲상품 판매 마케팅 등이며, 간판 제작·설치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집행한 홍보 마케팅비 증빙자료를 내달 20일까지 시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061-659-386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